

# 공공기관·교회·각종 모임서 새 집단감염... 꼬리무는 확산세

노원구 의회·구청 12명 확진, 마스크 착용 미흡 확인  
대구 가족2 13명·경산 일가족4 8명, 최소 2곳에 전파  
거제 유흥시설 관련 52명·기업3 관련 79명 집단감염  
진주 목욕탕2 총 206명, 목욕탕→가족·골프장→직장

각종 모임과 직장, 교회 등 일상 주변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노원구의회의와 구청에서도 수십명이 무더기 확진됐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도 매일 꼬리를 물며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6명이다. 수도권에서 261명(65.9%), 비수도권에서는 135명(34.1%)이 각각 발생했다. 최근 1주간 발생한 확진자는 총 2933명이다. 하루 평균으로는 419.0명이며, 이 중 수도권이 292.7명에 달한다. 경남권 58.9명, 강원권 18.0명, 충청권 17.4명, 경북권 17.0명, 호남권 14.0명, 제주권 1.0명이다. 새로 확인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노원구의회의와 구청 관련해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선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으론 총 12명이다.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를 포함한 종사자 4명, 가족 4명, 지인 1명, 기타 3명이다. 서울시 역학조사에선 기관 내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 교회 관련에선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더 확인돼 누적 12명이 됐다. 지표환자를 포함해 모두 교인이다. 경기 성남시 외국인모임 관련해서는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모두 지인이다. 경기 광주시 가구공장에서는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총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표환자를 비롯한 직원이 6명이 고, 나머지 4명은 가족이다. 전북 전주시 농기계업체모임 관련

해서는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12명이다. 업체모임 관련 9명(지표환자, 참석자 6명, 가족 2명), 노래방 관련 종사자 3명이다. 대구 중구 가족2 관련해 16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선 지금까지 총 13명이 확진됐다. 가족 관련 3명, 음식점 관련 3명, 당구장 관련 7명이다. 경북 경산시 일가족4 관련해선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더 감염돼 총 8명이 됐다. 가족 관련 3명, 병원 관련 5명이다. 경남 거제시 유흥시설에선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 51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사실이 밝혀졌다. 누적으론 총 52명이다. 목욕탕 관련 2명, 유흥시설 관련 50명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유흥시설 종사자가 목욕탕에 방문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확진자가 거제시 소재 기업3 관련과의 연관이 확인돼 유흥시설 관련 수지에서 제외됐다. 경남 거제시 소재 기업3 관련해서는 14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선 접촉자 조사 중 78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79명이다. 지표환자를 포함한 종사자 59명, 식당 직원 4명, 가족 10명, 지인 2명, 기타 4명이다.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해선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 중 28명이 추가돼 총 29명이 됐다. 어린이집1 관련 24명, 어린이집2 관련 4명, 어린이집3 관련 1명이다. 기존 속초시 체조원 관련해 추가 전파로 분류됐던 '어린이집 관련'이 역학적 연관성이 미흡해 별도의 사례로 분리했다. 기존 집단감염군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잇따라 나왔다. 경기 성남시 노래방 관련해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46명으로 늘었다. 직원 19명, 가족 및 지인 18명, 방문자 7명, 기타 2명이다.

경기 양평군 유흥업소 관련해선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더 늘어 총 27명이다. 방문자 10명, 직원 7명, 지인 및 가족 10명이다. 대구 수성구 병원 관련해서는 지난 2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으론 11명이다. 병원 관련 6명, 지인 관련 5명이다.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해서는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총 206명이 됐다. 목욕탕 관련 202명, 골프장 관련 4명이다. 목욕탕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친척(골프장)·동료→직장·가족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주(9~22일)간 신고된 6258명

의 감염 경로를 구분해보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조사중' 사례가 1660명(26.5%)에 달한다. 선행 확진자 접촉 2301명(36.8%), 집단발병 1874명(29.9%), 병원 및 요양병원 등 166명(2.7%), 해외유입 255명(4.1%), 해외유입 관련 2명(0.0%) 순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1~2월에는 20% 내외였으나 지난주에는 28.5%로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주요 집단감염을 보면 이미 잘 알려진 위험요인인 유흥상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종사자가 근무함으로써 집단발병으로 이어지고 있고, 집단생활·과밀 환경의 관리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의 조기 발견이 지연돼서 전파가 더 확산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발병 증가 등 감염이 더 확산될 경우에는 이전보다도 더 큰 규모의 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금지하며, 즉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시행 월정액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달 목욕' 신규발급 중단과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욕을 하고 있다.

## 여수산단 화학공장 20대 직원 확진...60여명 전수검사

감염원 불명...방역 당국 정밀 역학조사 중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 근무하는 2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공장 직원 6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산단 신입사원인 20대 A(전남 907·여수 65번) 씨는 16일 기침과 후각 손실 등 증상이 발현됐으며 21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에 입원했다. A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방문 검체 채취 결과 70대 할아버지가 양성 판정받고 전남 908번(여수 66번)환자로 분류됐다. 할머니는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다.

여수시 방역당국은 22일 A 씨의 동선 및 접촉자 추적 등 정밀 역학 조사를 펼치고 있으며 접촉자 19명을 격리 조치했다. 또 근무하던 공장 직원 6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 씨는 아직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학공장 내에서 근무하지 않아 공장 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일 오후 6시부터 22일 오전 8시 사이 순천시민 B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순천 252번(전남 906번) 환자로 분류돼 순천



22일 전남 여수시보건소 옆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의료원에 입원했다. B 씨는 순천에서 태양광 관련 일을 하는 전남 896번째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 두드러기 증상이 발현돼 검사 결과 확진됐다. 추가 감염 우려는 없는 상태다.

여수=오상호 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